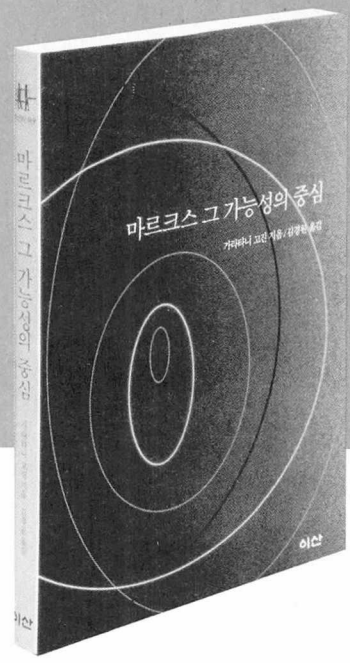
가라타니 고진은 '무식' 한가?

정운영의 '가라타니 고진' 서평을 반박한다

'무식' 한 건 가라타니인가? 아니면, 사회과학을 '졸도' 시킨다는 가라타니적 사고를 '깨임' 으로서 체험한 필자인가? 젊은 날 자신이 전공하는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을 영역하다 여백에 '멍청이' 라고 썼던 가라타니가 "학생의 답안이라면 F학점을 매기겠"다는 정교수의 서평에, 과연 몇점을 줄지 궁금하다.



가라타니 고진 지음/김경원 옮김
이산/A5신/264면/10,000원

가라타니 고진의《마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에 대한 정운영 교수의 서평(《출판저널》 제262호)은 '전공' 자로서의 권위의식이 때에 따라 얼마만큼 책 한권을 제대로 "읽"을 수 없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서평이었다.

정교수는 이 책의 인문학적 "유식"에 대한 찬사를 보내면서도 "구제불능의 무식"한 책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가라타니가 "가치에 본질이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인 정교수에 의하면 "가치분석은 마르크스 경제학의 핵심이며, 가치의 실체를 해명한 책이《자본론》"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자본론》에서 분명 "가치"에 대해 논하고 있지만 "가치의 실체"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라타니의 작업이 다름 아닌 이런 유의 혼동에 대한 비판이라는 사실은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교수에 의하면 "무지"와 "왜곡", "무지막지한 배짱"과 "전대미문의 혼돈"으로 가득찬 "무식"하고도 "딱한" 이 책이 보여주는 것은 "교환"이라는 행위에 내재하는 '근원적인 패러독스' 다. 바꿔 말하자면 "교환"을 둘러싼 '인간의 조건' 에 대한 통찰이다. 마르크스의《자본론》을 '읽' 는 행위를 통해 마르크스 자신도 자각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는 무의식적 사유체계를 발견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며 그 과정을 통한 가라타니 자신의 사유체계 자체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이 책은 마르크스의 '의도' 에 대한 주석서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자본론》의 표층이 아닌 심층을 분석한 책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작금의 문학비평과 닮아 있음은 저자가 문학비평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텍스트의 뒷편을 보려하는 정신분석적 시도가 그의 작업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에게 문제시되는 것은 마르크스가 무슨 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말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다.

"가치"란 그것이 "교환"됐을 때 비로소 "가치"가 된다. 그것이 설령 보석이라 해도 아무도 그것을 화폐를 주고 "교환"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은 "가치"라는 것이 본질로서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공간 혹은 시간의 '차이')하에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치"는 '실체' 일 수 없는 '허구' 다.

어떤 체계건(그것이 역사이건 국가이건) 그것은 원천적으로 존재한 적도 없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음을 그는 보여주고 있으며, 그 한 예로서 그는 자본제 경제가 "외부"를 필요로 함을 증명해보이고 있다. 가라타니가 언급한 발레리의 예처럼, 그것은 문학이라는 예술 '가치' 역시 마찬가지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학적 '가치' 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한 '시대' 와 '공간' 이 그것을 "가치"로 만들 뿐이다. 이른바 '예술' 은, 근대 이후에 주목받으면서 하나의 "아우라"화한 것임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그것에는 '가치' 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정교수가 생각하는 것처럼 "본질"적인 가치는 아니다.

"본질을 거부하고 주체를 파괴하는 포스트모던 사고"가 정교수에게는 불편한 듯하지만, "본질"이며 "가치"의 '허구성' 이 당연한 전제가 되고 있는 지성계의 "최첨단" 동향에 혹여 무관심하다면 "무식"한 건 가라타니인가? 아니면, 사회과학을 "졸도"시킨다는 가라타니적 사고를 '깨임' 으로서 체험한 필자인가? "학생의 답안이라면 F학점을 매기겠"다는 정교수의 서평에 대해, 젊은 날 이미 자신이 전공하는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을 영역하다가 여백에 "멍청이!"라고 쓰지 않을 수 없었다던 가라타니가 과연 몇 점을 줄지 궁금하다.

박유하

세종대 일문과 교수. 역서《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논문〈'인디펜던트' 의 함정—소세키에 있어서의 전쟁 · 문명 · 제국주의〉 외